“지하 1200m 천연온천 즐기세요”

순창군 ‘강천힐링스파’ 개장
95억원 투입 2904㎡ 2층 규모
족욕카페·아토피치유실 등 갖춰

강천산 진입로변인 순창군 팔덕면에 위치한 강천힐링스파가 개장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순창의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시설인 온천스파가 문을 열었다.

순창군은 전북도 동부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수(water)체험센터’가 ‘강천힐링스파’란 이름으로 개장했다고 밝혔다.

강천힐링스파는 국·도비 67억2000만원을 포함해 총 95억6100만원이 투입된 시설로 강천산과 연계해 관광객 500만명을 유치하자는 목적으로 건립됐다.

국내 최상의 음용수 및 온천수를 활용한 치유체험의 명소로 거듭나게 될 강천힐링스파는 강천산 진입로변인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일원에 연면적 2904㎡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1층에는 치유누리실과 사우나실, 2층에는 디톡스 족욕이 가능한 족욕카페와, 온열찜질을 할 수 있는 도반욕실, 순창의 미생물을 활용해 민감한 피부를 치유해주는 미생물아토피치유실, 어린이 놀이방, 간단한 차와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스넥코너 등이 다양하게 조성됐다.

시설 사용료는 치유누리실 1만원, 도반욕실 5000원, 족욕카페 5000원, 아토피치유누리실 5000원이며 순창군민은 50%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온천관광정원은 1000원의 입장료로 온천족욕장과 동굴형체험관을 즐길 수 있고 여름에만 조성되는 물놀이장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하 1200m에서 솟아나는 천연 온천수를 활용한 강천힐링스파가 본격 개장하면 강천산을 비롯해 순창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청정순창을 선물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군산시, 한방난임 치료지원 대상자 모집

군산시보건소가 한방 난임 치료 대상자를 모집한다.

한방 난임 치료는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약, 침, 뜸 등 한방치료를 제공해 임신 성공률과 건강한 출산을 도와주는 치료다.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돼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을 진단받은 자 중 한방 난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자로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 및 정자검사 결과지,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이며 치료기간 동안 이외의 시술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지정한의원은 사업 신청을 한 관내 소재 32개 한의원에서 가능하며, 한의원당 지원자 1명이 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모자보건계(063-460-3239)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남원시, 지역 대표 맛 ‘추어탕’ 산업화 추진

추어식품클러스터사업단 창립

남원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맛 중 하나인 ‘추어탕’의 본격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는 최근 추어 및 음식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지역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사단법인 추어식품클러스터사업단’을 만들어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사업추진 및 사업단 구성·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임원 선출과 설립 취지안을 채택했으며 정관과 올해 사업계획의 심의 등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추어식품클러스터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5개년간 총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동부권식품클러스터사업의 일환이다. 사업단은 특성에 맞는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농가의 조직화 및 추어 생산업체 등과의 협력네트워크 형성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추어식품의 고부가가치, 계약생산 활성화추진, 유통마케팅 고도화, 관광고도화 등 5대 전략 15개 세부사업을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지난 12일 남원시 농업인상생플랫폼에서 열린 ‘사단법인 추어식품클러스터사업단’ 창립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원시 제공〉

효도수당·효 자료보감 출시…익산시, 효 문화도시로 거듭난다

자산 활용 다양한 사업 추진

익산시가 지역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효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익산시는 지역의 효 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자료보감’을 출시했다.

자료보감은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지역의 효문화 유·무형 자산을 총망라해 효자·효부 열부(인물) 208명, 유형문화자료 164개소, 무형효문화자료 21건, 왕조실록, 문집 23건 등 총 416건이 수록됐다.

시는 효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한다.

효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마을을 ‘효행마을’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4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역 어린이들의 효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효행 스토리를 창작 동화와 그림책으로 제작했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절·인성 교육, 효행 스테이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유·아동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효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이야기 할머니’를 양성하고 있다.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초청하는 ‘장수 어르신 경로잔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역에 산재돼 있는 많은 유·무형의 효 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전통적인 효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고창 만돌어촌마을
해수부 ‘어촌 안심 여행지’

고창 만돌어촌 마을이 4월에 방문하기 좋은 ‘어촌 안심여행지’에 선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4월 어촌 안심 여행지로 고창군 심원면 만돌마을을 선정했다.

해수부는 어촌체험을 가족, 친지 등 소규모 여행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매달 선정해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만돌 어촌마을은 섬과 갯벌이 어우러져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에서의 체험〈사진〉은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갯벌에서 호미와 갈고리로 이곳저곳 파내다 보면 동글동글한 동죽조개가 모습을 드러낸다.

명사십리 해변과 갯벌 전망대에선 따스한 봄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만돌마을은 ‘마을에 굴뚝 만 개가 솟아 흥할 곳’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 해 질 무렵 펼쳐지는 낙조는 장엄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동죽과 바지락, 재래김과 천일염이 주요 특산물이다.

고창군은 ‘만돌권역 거점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만돌커뮤니티센터 조성, 바람공원 경관조명 설치, 마을생태숲 등이 들어선다.

또 바람공원 경관조명, 옥상 공원과 하늘사다리는 주변 관광시설(갯벌 체험장, 갯벌 식물원 등)과 연계해 심원면의 관광자원을 더욱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립농악단, 버스킹식 ‘힐링선물’ 공연

11월까지 매주 토·일 1회

정읍시립농악단이 ‘힐링 선물’이란 상설공연 프로그램을 마련해 오는 11월까지 버스킹식 농악공연을 펼친다. 〈사진〉

공연은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매주 토·일 1회 오후 3시에 펼쳐지며 매월 첫째·셋째·다섯째 토요일은 정촌가요특구에서, 둘째·넷째 토요일은 내장산조각공원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상설공연은 산업화로 점차 사라져 가는 정읍농악의 연행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을 문화상품으로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정읍농악 시연과 사물놀이, 버나놀이, 사자춤, 12발 상모, 민요 등 전통 연희마당을 선보인다.

정읍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관람객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며 “앞으로 공연내용의 다양성을 통해 더욱 사랑받는 토요 상설공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